2009 문화계 결산 (하) 문학·출판

2009년 한해 문학과 예술정신을 배우려는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이 광주·전남을 찾았다. 사진은 장흥 이청준 생가를 찾은 문학기행단의 모습.

젊은 작가들 지역문단 빛냈다

창작 활동 왕성… 김경욱씨 등 잇단 문학상 수상

'문학관' 건립 윤곽…서점가·출판계 불황은 여전

2009년 한해는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의 활약이 어느 때 보다 두드러진 해였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잇따라 작품을 냈으며 중앙무대에 진출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줬다.

소설가 한승원씨는 지난해 '한승원의 글쓰기 비법 108가지' 에 이어 소설 창작론 '한승원의 소설 쓰는 법' 을 출간했다. 또 8월에는 소설집 '희망 사진관'을 내놓는 등 지치지 않는 창작열을 과시했다. 소설가 조정래씨도 40년 작가생활의 애환을 담은 자전 에세이집 '황홀한 글감옥' 을 펴냈다.

곡성 출신 작가 공선옥씨는 연초부터 문학동네의 인터넷 독자 커뮤니티에 장편소설 '내가 가장 예뻤을 때'를 연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서은문학연구소를 열고 후학 양성과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문병란 시인은 2006년 '민들레 타령' 출간 이후 3년 만에 자신의 스물 여섯번째 시집 '매화연풍'을 출간했다. 광주대를 정년퇴직하고 담양 '생오지'에 둥지를 튼 소설가 문순태씨는 4년만에 창작집 '생오지 뜸부기'를 냈으며 11월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다룬 장편소설 '알수 없는 내일' '1, 2'를 내며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30~40대 젊은 작가들의 비약적인 성장은 타 지역 문단의 부러움을 샀다.

광주 출신 소설가 김경욱씨는 제40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김경주 시인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김수영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우리시대 대표 젊은 시인으로 꼽혔다. 올해 초 '내 심장을 쏴라'로 1억 원 고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정유정씨의 활약도 돋보였다.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로 알려진 정씨는 최근 영화잡지 '무비위크'가 선정한 '2009년을 빛낸 창조적 엔터테이너 30인' 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인인 다형 김현승 시인의 탄생 100년(2013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됐다.

시인의 제자인 문병란, 손광은, 이성부, 이운룡, 문순태씨 등으로 구성된 '다형 김현승 시인 기념사업회'는 3월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첫 사업으로 시선집을 출간했으며 '제1회 다형 김현승 학술발표회' 를 열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문학인의 숙원사업인 '문학관' 건립이 윤곽을 잡았다. 광주시는 2012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가칭 '광주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학관은 총 109억원(국비33억 시비76억)이 투자되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 배경지나 고향에서 각종 문학제와 문학기행도 활발히 펼쳐졌다.

'문학관광기행특구' 장흥에서는 전남문인협회 주최로 전국문인 초청 문학기행이 진행되었으며 장흥군은 전국에서 문인 300여명을 초청, '제1회 전국문학인대회'를 개최했다.

목포에서는 지역문학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목포! 문학축전'이 지난해에 이어 목포문학관 일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문을 연 '태백산맥 문학관'과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인 보성 벌교, 소설가 한승원씨의 작업실 있는 장흥은 문학 기행코스로 각광을 받았다. 특히 마지막까지 예술혼을 불태우고 지난해 타계한 고(故) 이청준 선생의 생가와 장흥 고향마을은 선생의 예술정신을 배우려는 후배 문인과 예술인의 사랑을 받았다.

반면 지역 서점가와 출판계의 불황은 여전히 고심거리였다. 52년 전통의 대전 대훈서적이 끝내 파산해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 출판계는 지역 대형서점의 파산으로 더욱 위축되었고 중·소형 서점은 자금압박의 위기감에 휩싸여야 했다. 이런 가운데 푸른사상사가 광주대 이은봉 교수를 중심으로 시 전문 문예지 계간 '시와 시'를 창간 침체된 지역 시문학의 불씨를 살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김세곤 위원장 역사기행서

고봉, 퇴계를 그리워 하다

역사·인물기행 글을 주로 쓰고 있는 김세곤(56·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씨가 광주 출신 성리학자 고봉(高峯) 기대승(1527~1572)의 삶과 학문세계를 담은 역사기행서 '고봉, 퇴계를 그리워 하다'를 펴냈다.

이번 책은 '남도문화의 향기에 취하여-정과 한의 역사' '송강문학기행-전남 담양'에 이은 저술로 저자의 호남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正體性)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철저한 고증과 현장답사를 통해 저술된 이번 책은 고봉의 어린 시절, 신접살이, 퇴계와의 만남, 학문의 수양과 논쟁, 장례식과 묘소 등을 일대기 순으로 정리해, 고봉의 체취와 숨결까지도 감지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퇴계와 고봉과의 사단칠정(四端七情) 논변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호남 학맥을 답사를 통해 풀어쓴 대목은 조선 성리학계의 학문세계를 꿰뚫는 그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부록으로 고봉 기대승 연보, 고봉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 고봉의 유적지 안내도를 실어 고봉의 삶과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씨는 여수 출신으로 광주살레시오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노동부고용관리과장, 목포지방노동청 사무소장, 법무행정팀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을 엮임 했으며 노동관련 책으로 '알기 쉬운 근로자 파견제도' '유럽의 노사관계와 고용' '객관식 노동법' 등을 냈다. 한국 수필가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보림·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흙으로 빚은 가족의 얼굴

김용우 전…18~30일 자미갤러리

'J씨 가족 이야기'

흙에 새 생명을 불어 넣고 있는 테라코타 작가 김용우씨가 오는 18~30일까지 광주 자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김씨는 단란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흙으로 빚은 조각품을 선보인다.

흙의 거친 질감과 투박한 색이 친근한 가족의 얼굴을 형상화했고, 아기를 업거나 손을 흔드는 등 섬세한 움직임도 만들어 냈다.

호남대 미술학과,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그는 13차례 개인전과 전국조각가협회 정기전 등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남도조각가협회, 호남조각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523-091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

윤영기 작 '초암산의 봄'

지리산·순천만 '남도의 美'

아이월드사진클럽 회원전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아이월드사진클럽(회장 윤영기)이 오는 18일까지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7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철수, 오승규, 류인현, 류종관, 이예호, 박정수, 조시환, 박준석, 정성례, 박흥식, 최병일, 성치풍, 최병춘, 오만복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리산, 순천만, 영산강 등지를 돌며 포착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윤영기씨는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보성 초암산의 철쭉을 화면 가득 형상화한 '초암산의 봄'을 전시한다. 문의 062-650-815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발레로 만나는 '호두까기 인형'

광주시립무용단 18일 문예회관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어김 없이 찾아오는 최고 인기 발레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이 공연된다. 18일 오후 7시30분, 19일 오후 5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무대에 올리는 '호두까기 인형'은 독일 작가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클라라가 꿈에서 왕자로 변한 인형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그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작품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요정의 춤, 쥐들의 춤 등 다양한 춤과 세계 각국의 민속무용을 만날 수 있는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인상적이다. '꽃의 왈츠'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아름다운 차이크프스키의 음악은 작품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다. 클라라 역의 정정은, 왕자 역의 오윤환씨 등 40여명의 단원이 출연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오는 24·25일 두차례 대구 계명아트센터에서도 공연된다.

티켓가격 2만원, 1만원, 5천원.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 명성, 그대로, 땀과 열정과 합격의 명예가 함께합니다.
2010년 시험 합격을 위한 최선의 선택!
9급 7급 공무원 강좌
특보
· 2010년 공무원 정원 4,600여명 증원,
· 2011년까지 세무직 1472명 증원,
· 2013년까지 소방직 8000여명 증원 예정
"이제 대세(大勢)는 '무등고시학원' 입니다"
【정규종합반, 야간반, 단과반, 문제풀이반】
일반행정직/세무직 출관직/관세직 9급교육행정직
겨울방학 大개강 1월 4일(월)
법원직/검찰직 교정직/소방직 복지직/기술직
2010대비공개설명회 : 12월 9일 / 12월 26일 15:00 본원 201 강당
당일 공개설명회 참석 후 등록시 공통과목 교재 무료제공
10급 기능직 특채 및 일반직 전환 대비
2010년 전직, 승진시험 및 10급 기능직 특채 대비
박찬걸, 임강석 교수팀, 연중상설 강의 개설
• 각 과목별 8주완성
• 야간반, 주말반 동시 개강
개강 및 공개 설명회 1월 9일(토) 14:00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위치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4560

광문공인중개사
☎ 062-365-1920
모텔 임대 매매 전문
• 신축 무인텔 급임대
무인텔 월매출 5천이상
4억5천에 월 1,500만원
신축모텔 부지다량확보!
• 일반모텔 월매출
5천이상
급 매매가 15억원
은행대출 8억
실투자금 7억 OK
• 전국 모텔 임대 매매 전문
➜손님이 와글와글하고
알짜배기 모텔!
• 순천 모텔 임대
보증금 3억 월 900만원
목포 해안도로쪽 모텔
급 매매 다량 확보!
교환
• 목포➜모텔,사우나,
주차장, 세차장
• 대지
➜350평, 건평 600평
월순소득 2,000만원
이상 확보
• 교환조건
➜모텔, 땅, 토지, 임야
해남권
➜독점 모텔 매매가
5억7천
월순소득 1,500만원
이상 확보!
모텔임대사업
• 3~4억 투자하시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소득 확보!
등기필 100%
010-7637-7743,010-4703-6223,011-623-8972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 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300평(전) - 평당 80만원
150평(전) - 평당 80만원
470평(답)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분할가능)
• 격포 바닷가, 펜션, 모텔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전,모텔,1동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답)
500평 - 평당 60만원(부안댐앞,주택1동포함)
1200평(전)-평당 35만원 (2~300평 분할가능)
- 투자물건 다량확보중(소액부터 다액까지)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펜션 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2010년초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중개
• 상가/모텔 투자 물건(지상 5층)
완도읍, 중심 상권내 대지 80, 건평 320평 매매가 10억
보증금 4,000만원 월 매출 1,230만 이상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임공인중개사
상담환영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상가건물(롯데백화점 인근, 현 성업중)
대 453㎡ / 건 2011㎡(사우나+원룸21실+주택)
- 수익률 15%이상 매매가 20억(설정 10억, 조정가)
▶상가건물(완도읍 여객선터미널옆) 대 260㎡/ 건 989㎡(상가+모텔19실+주택) 수익률 아주 좋음 매매가 10억(조정가)
토지(광주호상류-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 34.830㎡ 매매가 3.3㎡당 12만원(분할가)
▶농지(무안군 운남면) 23.600㎡(바닷가,계획관리지역) 매매가 3.3㎡당 20만원
대지(신촌동) 764㎡(버스승강장접, 전철역 5분거리)
- 매매가 ㎡당 36만원(원투룸, 빌라, 물류창고적합)
▶고시텔(전대후문 체육공원 인근) 대 282㎡ 건 560㎡ (최근준공) 룸52(룸당 월임대료 23만원) 매매가 8억5천
대지(북구 신안동)402㎡(물류창고최적)
- 매매가 3.3㎡당 150만원
▶농지(전.담양군 금성면) 883㎡ (관리지역) 매매가 3200만원(조정가)
농지(충효동-광주호상류)전 1,927㎡
- 각종 유실수 100여 주식제, 매매가 ㎡당 9만5천(가격조정가)
▶가든식당(월출산국립공원 입구) 7,665㎡ 식당, 숙박업, 단란주점, 체육시설, 농장 모든시설 허가 필 - 매매가 3.3㎡ 당 32만원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